

이 보도자료는 2014. 5. 7.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라며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유상범
전화 02-530-4304 / 팩스 02-530-4220

보도자료 2014. 5. 2.(금)

자료문의 : 강력부장
전화번호 : 02-530-4320
팩스 : 02-530-4219
주책임자 : 강력부장 강해운

제 목 조폭 개입 不法 先物市場 개설 사건 수사결과

1 사건 개요

- 서울중앙지검 강력부(부장검사 강해운)는,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직 폭력배와 리딩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된 1,223억원대(수익금 약 200억원 상당) 불법 선물시장 개설 사건을 수사하여, 총 50명을 적발하였음(8명 구속기소, 27명 불구속기소, 15명 기소중지)
 -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유성온천파, 반도파 조직원을 포함한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 5명 인지(2명 구속기소, 1명 불구속기소)
 - 불법 선물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회원들을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리딩그룹 관리자 및 리딩 전문가 24명 인지(3명 구속기소, 12명 불구속기소)
 -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대포통장 176개를 만들어 선물시장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한일파 등 조직 폭력배 21명 인지(3명 구속기소, 14명 불구속기소)
 - 도주한 선물시장 운영자 2명, 리딩전문가 9명,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4명 기소중지
- 또한, 불법 선물시장 지분권자와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 인출 등 본건 범행에 적극 관여한 4명의 재산에 대하여 위 수익금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추징보전하고, 비밀 정산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현금 3,305만원을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도 하였음

2

주요 피의사실의 요지

● A○○ 등 불법 선물시장 운영자

- 2012. 10.~2014. 2. 24. 1,223억원대 인터넷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(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)
- 위 기간 동안 범죄수익 중 약 34억원을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(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)

● A△△ 등 리딩그룹 관리자 또는 리딩전문가

- 위 기간 동안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, 카페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본건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고, 운영자들로부터 리베이트(리딩비용) 수수(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또는 그 방조)

● ㄱ○○ 등 대포통장 공급자

- 2013. 3.~2014. 1. 유령법인 20개를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, 등기소에 허위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, 이를 보존하게 함(상법위반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,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)
- 2013. 4. 초순~2014. 2. 중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176개의 대포통장을 운영자들에게 양도(전자금융거래법위반)

※ 피의자별 구체적인 역할은 첨부 '피의자별 역할 및 처분결과' 참조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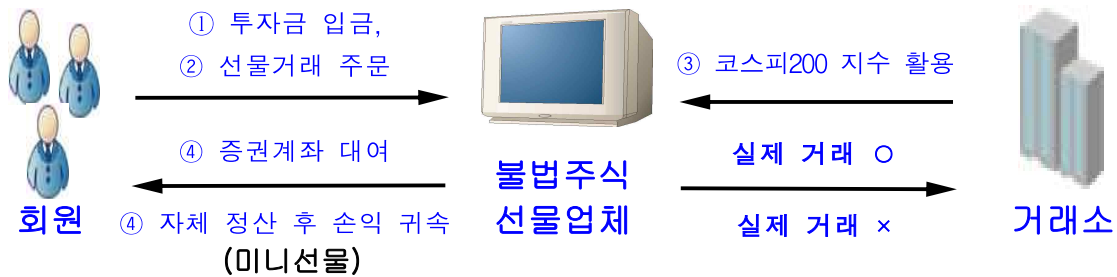
범행의 특징

□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개요

- 2가지 불법 선물거래 유형인 『증권계좌대여』와 『가상 선물거래(속칭 미니선물)』 운영 병행
- 회원들이 선물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(10억원 내지 20억원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차명계좌 3개)를 대여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챙김(무인가 금융 투자업영위)

- 증권계좌 대여없이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운영자들이 개설한 가상 선물 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, 손익 발생시 이를 운영자가 직접 책임지면서 수수료 외에 회원들의 손실금까지 수익금으로 챙김(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)
- ※ 고액의 증거금(선물거래 1계약당 1,500~2,000만원)을 예치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본건 선물사이트를 이용하게 함

-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 -



- 선물거래 경험이 많아 수익률이 높은 회원들 상대로는 선물거래 중개만 하고, 수익률이 낮은 회원들은 가상의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그들의 손실을 모두 수익으로 취득함으로써 고수익 가능(이른바, '하이브리드' 방식)

□ 체계적이고 은밀한 사이트 운영

- 지분권자로서 본건 사이트 운영 총괄, 회계팀장, 차명계좌 관리 및 현금 인출 담당, 해외지점장, 리딩팀장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고,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(HTS)을 보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함
- 선물거래 사이트 3~4개(W, CME365, CL, STOCK24)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사이트 변경(총 20여개), 해외(중국, 일본)에 콜센터 및 서버 설치, 비밀정산사무실 별도 마련, 차명계좌 이용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함

□ 소위 리딩전문가(증권전문가)들과 연계

- 리딩전문가들은 자신의 회원들에게 아프리카 TV, 팍스넷 등 인터넷 방송, 네이버, 다음 등에 개설한 카페 등을 통하여 본건 사이트에서의 거래를 추천하고 그 수수료 수익 중 25~45%의 리베이트를 '리딩비용' 명목으로 수수
- ※ 운영자들은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도 리딩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
- 리딩그룹 관리자 4명은 각자 10~40명의 리딩전문가를 관리하고, 리딩전문가들은 500~600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본건 사이트에서 거래 유도
- ※ 리딩전문가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총액은 약 53억 5천만원에 이르고, 1인당 수수금액은 5억 5천만원~2천만원 상당임

□ 조폭들의 조직적 개입

-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유성온천과 조직원 B○○은 지분권자로서, 반도파 조직원 D○○는 대포통장 모집과 수익금 인출을 담당하는 등 조직폭력배가 본건 사이트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
 - ※ B○○이 A○○의 선물거래 사이트를 D-DOS 공격하자 A○○이 B○○(D○○는 B○○의 후배)을 만나 동업을 제의, 다시 B○○이 C○○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D-DOS 공격하여 C○○, A○○이 만나 동업에 합의함
- 같은 지역 폭력조직인 한일파(14명), 신미주파(4명), 신안동파(2명) 등 조직원 20명이 동원되어 유령법인 20개 명의 176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운영자들에 양도하는 등 조직폭력배가 본건에 조직적으로 개입
 - ※ 약 1년3개월 동안 매월 약 600만원~3,000만원, 합계 약 3억2,000만원의 통장 비용이 대전 지역 폭력조직으로 유입됨

□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

- 본건 선물시장 운영자들은 2012. 10.~2014. 2.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00억원 중 약 34억원을 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세탁
 - ※ 개인 명의 대포통장은 명의자가 갑자기 통장을 해지해 버릴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관리할 수 없었음

4

수사의 의의

● 불법 선물시장에까지 조폭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

- 이른바 제3세대 조폭은 M&A 및 주식시장 등에서 탈세, 횡령, 배임, 기업탈취 범행 등의 개입에서 나아가 이제는 그 시장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불법 선물시장에까지 진출하여 지분권자로서 운영 총괄, 자금세탁 창구 제공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

●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조직의 전모를 밝혀냄

- 약 2개월간의 수사로 지분권자, 회계팀장, 수익금 인출 담당자, 리딩전문가 및 대포통장 공급책 등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조직의 구조를 밝혀냄

● 소위 증권전문가들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적극 조장하고 있음을 확인

- 운영자들은 수익금의 약 45%까지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리딩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, 양자 사이는 공생관계를 넘어 오히려 리딩전문가들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적극 조장하는 단계에 이름

첨부

피의자별 역할 및 처분결과

순번	피의자	피의자들의 역할	폭력조직	비 고
1	A○○(39세)	지분권자로서 운영 총괄	·	구속기소
2	B○○(38세)	"	유성온천파	기소중지
3	C○○(34세)	"	·	"
4	D○○(37세)	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 인출	반도파	구속기소
5	E○○(여, 35세)	수익금 등 자금관리	·	불구속기소
6	A△△(44세)	리딩그룹 관리 및 수수료 정산	·	구속기소
7	B△△(47세)	"	·	"
8	C△△(35세)	"	·	불구속기소
9	D△△(47세)	리딩전문가	·	구속기소
10	E△△(45세)	"	·	불구속기소
11	F△△(38세)	"	·	"
12	G△△(41세)	리딩그룹 관리 및 수수료 정산	·	기소중지
13	H△△(34세)	리딩전문가	·	불구속기소
14	I△△(33세)	"	·	"
15	J△△(33세)	"	·	기소중지
16	K△△(33세)	"	·	기소중지
17	L△△(43세)	"	·	불구속기소
18	M△△(47세)	"	·	"
19	N△△(27세)	"	·	"
20	O△△(34세)	"	·	"
21	P△△(45세)	"	·	"
22	Q△△(41세)	"	·	"
23	R△△(46세)	"	·	"
24	S△△(50세)	"	·	기소중지
25	T△△(39세)	"	·	"
26	U△△(42세)	"	·	"
27	V△△(46세)	"	·	"
28	W△△(49세)	"	·	"
29	X△△(33세)	"	·	"

30	ㄱ○○(28세)	유령법인 설립 및 대표통장 모집책	한일파	기소중지
31	ㄴ○○(28세)	"	신미주파	"
32	ㄷ○○(26세)	유령법인 설립 관련 주금납입 주도	한일파	구속기소
33	ㄹ○○(28세)	유령법인 4개의 임원	한일파	"
34	ㅁ○○(26세)	유령법인 4개의 임원	한일파 추종	"
35	ㅂ○○(22세)	유령법인 2개의 임원	한일파	불구속기소
36	ㅅ○○(26세)	유령법인 2개의 임원	한일파	"
37	ㅇ○○(28세)	유령법인 2개의 임원	한일파	"
38	ㅈ○○(27세)	유령법인 1개의 임원	신미주파	"
39	ㅊ○○(28세)	유령법인 1개의 임원	신미주파	"
40	ㅋ○○(23세)	유령법인 4개의 임원	신미주파	"
41	ㅌ○○(23세)	유령법인 3개의 임원	한일파	"
42	ㅍ○○(23세)	유령법인 3개의 임원	한일파	"
43	ㅎ○○(23세)	유령법인 1개의 임원	한일파	"
44	ㄱ△△(22세)	유령법인 3개의 임원	한일파	기소중지
45	ㄴ△△(26세)	유령법인 3개의 임원	한일파 추종	불구속기소
46	ㄷ△△(25세)	유령법인 2개의 임원	신안동파	기소중지
47	ㄹ△△(23세)	유령법인 2개의 임원	한일파	불구속기소
48	ㅁ△△(26세)	유령법인 1개의 임원	.	"
49	ㅂ△△(26세)	유령법인 1개의 임원	신안동파	"
50	ㅅ△△(23세)	유령법인 2개의 임원	한일파	"